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1월 ~ 1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라벨링, EU, 영양 정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라벨링, EU, 영양정보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p>2011. 7. 6. 유럽연합, 식품 라벨 규정 강화 - 원산지 표시 의무 식품 확대</p>	<p>2013. 12. 13. 유럽연합, 식품 라벨 규정 강화 -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p>	<p>2016. 10. 25. Change.org, 포장 식품에 칼륨 함량 표시 청원서 제출</p>	<p>2016. 12. 13 유럽연합, 2016 새로운 식품 라벨 규정 시행</p>
---	---	--	---



핵심이슈
도출

EU,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정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EU,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정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소비자를 위한 식품 정보(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FIC : EU 1160/2011)’ 규제법에 대해 2016년도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정을 발표하였다.

앞서 개정된 2014년 규제법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상이한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표기 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식품에 대한 영양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번 2016년 개정안에서 표기 의무화 된 부분은 ‘열량’과 ‘영양정보 총량’으로, 영양정보 총량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염분에 대한 각각의 성분량을 기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불포화지방, 다가 불포화 지방, 폴리올스(Polyols), 녹말, 섬유소, FIC에 명시된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

참고 사항으로 제품 포장 전면에 표기되는 영양정보 라벨링은 명확한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필수 및 부가 정보만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열량 값이나 영양정보 총량이 아주 적을 경우 ‘소량의~를 포함함(Contains negligible amount of~)’과 같은 문구로 대체될 수 있다.

유럽 산업 무역기구인 ‘Food Drink Europe’ 은 새로운 영양 표시 규정의 이행에 있어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유럽의 식품 및 음료 산업계는 지난 몇 년간 새로운 규정에 맞춰 시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하고 가치 있는 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EU는 2013년 12월부터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 표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2016년 12월부터는 열량과 영양정보 총량 두 가지 정보가 필수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첨가물의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유럽 지역에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 제조 기업들은 기존에 허가된 첨가물이 재평가 후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영양정보 표기 뿐만 아니라 첨가물 재평가 일정을 주시해 수출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규제와 내용은 EU위원회 식품안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europa.eu/food/safety_en)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